



폭설이 내린 5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2010년 첫 합동훈련을 갖은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실내에서 러닝 훈련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랑이해, 호랑이 질주 시작됐다



무등경기장서 'V11' 향한 담금질 본격 돌입
 서재응·윤석민·이용규 등 재활조 광 출국

호랑이해, 호랑이들의 질주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모여 2010년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광주를 뒤덮은 폭설도 선수들을 막지 못했다. 개인 훈련 등을 하며 2009년의 마지막 달을 보냈던 선수단은 예정된 오전 10시 무등경기장야구장에 모여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조범현 감독은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

다. 부상당하기 않게 조심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에게 2010년의 선전을 당부했다. 밤새 내린 눈이 경기장에 쌓이면서 첫날 훈련은 실내 훈련으로 치러졌다. 오전 무등경기장 실내 하우스에서 러닝을 한 선수들은 오후에는 웨이트장에서 몸만들기에 나섰다. 전태현·양현종·문현정 등 선수들은 짧은 머리를 한 채 경기장에 나타나 2010년의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

지난달 신용운과 자비를 들여 필리핀 훈련을 다녀왔던 투수 문현정은 "주장인 김상훈 선배가 자신보다 머리 길게 하고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놔다"며 "신종길, 신용운 등과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새해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강철 코치를 중심으로 한 재활조는 스프링캠프 선발대로 광으로 출국했다. 재활조에 포함된 서재응·윤석민·곽정철·신용운(이상 투수)과 김상훈(포수), 이용규(외야수) 등 7명은 구단버스편으로 인천으로 출발해 이날 저녁 광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광 파세오 구장에서 재활 및 기초체력훈련과 캐치볼 등 훈련하고 일시 귀국한 뒤 일본으로 건너간다. KIA의 2010 스프링 캠프 일정도 확정됐다. 재활조에 이어 11일 투·포수조가 광으로 출국하고, 17일에는 야수조가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를 차리면서 2연패를 향한 담금질이 본격화 된다. 29일부터는 광 훈련조가 일본으로 이동해 야수조와 합류한다. 선수단은 내달 20일까지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체력훈련 등을 실시한 뒤 가고시마로 이동해 연습경기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해외에서 구슬땀을 흘린 KIA 선수단은 3월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전지훈련 참가명단은 추후 결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재응 연봉 20% 삭감된 3억에 재계약



'2010년에는 빅리거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서재응이 5일 3억7천500만원에서 7천500만원 삭감된 (20%) 3억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2008년 5억원의 연봉을 받고 한국무대에 데뷔한 서재응은 지난 시즌 3억7천500만원에 이어 올 시즌 3억원에 계약을 하면서 2년 연속 연봉이 삭감됐다. 서재응은 "2년 연속 연봉이 삭감되어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올 시즌에는 좋은 경기를 펼쳐 꼭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서재응은 21경기에 출장해 6.13의 방어율을 5승4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08년 마무리캠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서재응은 10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지난 시즌에도 오른쪽 팔꿈치 부종으로 한 달 여가량 2군에 머물기도 했다. 2010년 서재응의 목표는 '풀타임'이다. 지난해 우승이라는 감격스런 순간을 누렸지만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우승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자존심 회복을 선언한 서재응은 5일 김상훈·윤석민·이용규 등과 스프링 캠프 선발대로 광으로 출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연패 도전 키워드는 "성숙"

■조범현 감독 새해 구상

"2010년의 키워드는 '성숙'이다." KIA 타이거즈의 합동훈련이 시작된 5일 조범현 감독이 2010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2연패에 도전하는 조 감독의 키워드는 '성숙'이다. 조 감독은 "지난 1년이 선수들에게 큰 경험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을 거라고 본다"며 "선수 개개인이 어떤 심정으로 작년을 보냈는지 또 작년 흐름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대도 된다"고 밝혔다. 한층 성숙해진 선수들의 움직임이 디펜딩 챔피언 KIA의 201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감독은 군 재대선수와 신예 좌완선수

전력보강 없지만 신용운·김희걸 등 기대

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 조 감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전력보강이 없지만 군재대 선수들이 전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특히 김희걸, 신용운이 1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마운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고 밝혔다. 구본승과의 계약이 불발에 그치면서 새로운 선발감을 찾고 있는 조감독은 곽정철의 선발 기용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캠프에서 선수들의 구위를 점검하면서 선발에 비중을 둘지 불펜에 비중을 둘지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주가 빠진 불펜의 그림은 전태현을 비롯해 좌완들이 정은운·박상혁·심동섭·임

기준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현근을 대체할 백업 유격수가 없다는 것은 조 감독의 고민이다. 12월 김선빈·최용규·김민철 등 내야수들은 화순고에서 특별 훈련을 하며 경쟁을 해왔다. 조 감독은 이번에는 고대 출신의 내야수 신인 홍재호를 캠프에 합류시켜 내야의 밑그림을 그릴 생각이다. 계약문제로 팀 훈련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는 장성호에 대해서는 "장성호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계약문제로 구단과 선수사 이 서운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고 야구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종범과 이대진 두 노장에 대해서도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었고 후배들에게 계임 운영, 자기 관리 등 본보기가 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2년의 시간 동안 이방인에서 우승팀 감독으로 변신한 조 감독은 부쩍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전했다. 그만큼 부담감도 있지만 선수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것은 지도자로서 큰 보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새 투수코치 日 스키모토 영입

KIA 타이거즈가 2009시즌 일본 요코하마에서 활약한 스키모토 타다시(51)코치를 새로운 투수 코치로 영입했다. KIA는 5일 스키모토 코치와 연봉 1천2백만엔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다이에 호크스 2군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스키모토 코치는 세이부, 소프트뱅크, 요코하마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스키모토 코치는 1981년 세이부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뒤 세이부, 주니치, 다이에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현역



시절 298경기에 등판해 81승 90패 방어율 3.87을 기록했다. 히가시오 전 세이부 감독은 스키모토 코치에 대해 "성적이 온화하고 인간성이 좋다"며 "훌륭한 지도력을 소유한 코치"라고 평가했다. 투수 코치 인선을 끝으로 KIA의 2010시즌 코칭스태프 구성이 모두 마무리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조범현 감독 '천하무적...' 일일강사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천하무적야구단' 일일강사로 나섰다. 광주출신의 개그맨 한민관과 배우 마르코 등 KBS 예능프로그램 천하무적야구단 멤버들이 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아 조범현 감독으로부터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 조 감독은 "지난달 일구회 시상식에서 만난 천하무적야구단 멤버들이 원포인트 레슨을 부탁해서 이번 촬영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 감독이 예능프로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하무적야구단은 일구회 시상식에서 사회인야구 활성화와 야구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진 2009.12.20~2010.02.28

100% 당첨가능

(주)우등권광여행사
 전화 : 062-383-9042

제주여행 이지 할인 받고 가자!!

100% 당첨가능 제주도 3박 4일 여행 패키지 20% 할인	100% 당첨가능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20% 할인	100% 당첨가능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20% 할인
---	---	---

www.jesju.com (2010.1.15 ~ 2.28) 100% 당첨가능